

성별 고정관념의 암묵적 표상구조: 성별단서, 범주전형성 및 성별선호도의 상호작용*

이 재 호 · 조 혜 자 · 방 회 정

중앙대 심리학과 · 이화여대 심리학과 · 경기대 청소년학과

성별 고정관념은 일반 범주와는 달리 매우 복잡하고 다원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왔다. 본 연구는 성별 고정관념의 암묵적 표상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성별단서(남성이름과 여성이름)를 점화자극으로 전의식 수준(150ms)에서 제시하고, 전형성과 선호도를 변화시킨 속성 형용사를 명명과제로 사용하여 명명시간을 측정하였다(SOA 250ms). 그 결과, 성의 일치성 효과는 여자 참가자에게서만 나타났고, 전형성 효과(고정관념 일치효과)는 남녀 모두 이성에게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성 효과가 나타났으나 남녀 참가자 모두에게 여성 선호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여성의 고정관념이 남성에 비해서 강하게 표상되는 성별간의 비대칭적 표상이 구성될 가능성과 성별 고정관념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처방적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제어: 고정관념, 사회적 표상, 점화효과, 긍정성 효과, 전형성 효과

성별 고정관념(gender stereotype)은 일상적 사회적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유지되는 신념체계의 하나이다. 사회인지 이론에 따르면 고정관념은 도식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일반 지식과 유사하게 범주적으로 표상된다고 보았다(Kunda, 2000). 고정관념은 성별, 인종, 연령, 및 직업 등의 다양한 유형들

이 있지만, 특히 성별 범주(gender category)가 다른 범주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띄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문화적으로 성별에 따른 기대, 역할, 지위, 및 역할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서구의 연구에서도 생애의 초기부터 아동들은 인간을 성별로 범주화하고 고정관념을 적용하게 된다는 보고가 있었다(Mackie, et al.,

* 이 연구는 2000-2001년도 과학기술부 뇌과학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1996). 성별 범주가 발달상에서도 초기에 나타나고, 성별 범주가 강조된 문화적 경험이 축적된다는 주장을 수용한다면 성별 범주의 표상은 매우 정교화된 사회 지식으로 표상되었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성별 범주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특징들을 근거로 나누어지는 범주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인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는 사회적 범주이다 (Spence, 1995). 성별범주를 사용할 때의 잇점은 개인의 개별 속성들을 일일이 고려할 필요가 없고, 범주의 대표적인 속성을 기초로 처리를 해나가게 하므로 인지적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Macrae, et al., 1994). Deaux 등 (1985)은 성별관련 특성을 다른 범주들의 특징처럼 정의적 특징(즉, 생물학적 특징), 특성적 특징(즉, 물리적 특징), 및 내면적 특징(즉, 성격적 특징)으로 나누고, 이들 속성의 위계적 표상을 주장하였다. 이는 성별 범주의 표상이 다른 개념들에 대한 표상처럼 위계적이거나 의미 망 체계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회적 대상이나 행위에 대한 표상도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이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위계는 구성원들의 유사성에 근거한 속성들의 연결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Fiske & Taylor, 1991). Ashmore(1987)는 성별 범주화가 일어나고 나면 사람들은 그가 속한 범주에 대한 암묵적 성격이론을 적용시켜 개인의 속성을 추론하게 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즉 성별 고정관념은 어떤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알면 그에 일치되는 표상을 자동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따라서 고정관념에 맞는 정보의 처리를 촉진시키는 일치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Banaji, & Hardin, 1996; Fazio, et al., 1986).

그러나 성별 범주의 표상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복잡한 구성체임을 알 수 있다. 성별 범주의 내용은 신체특성과 성격특성을 포함하여, 역할, 직업, 정서적 특징 등의 속성을 다원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고 (Deaux & Lewis, 1984; Deaux 등, 1998). 여성과 남성에 대한 하위 범주 연구들은 남녀의 성별 표상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면서 분화되어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 (Eckes, 1994; Six & Eckes, 1991). 또한 사회 범주인 성별 범주는 일반 범주에 비해서 매우 복잡한 표상을 구성하지만 인지 일반의 표상에 비해서 느슨한 구조로 표상된다는 주장도 있다 (Kunda, 2000; 이재호 등, 2001). 이는 성별 고정관념의 표상에 대한 명확한 표상 특성을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성별 고정관념의 비대칭성

성별 고정관념의 내용은 단순히 남성과 여성을 기술하는(descriptive) 내용 뿐 아니라 처방적(prescriptive) 속성(Fiske, 1994)과 평가적(evaluative) 속성을 지닌다(Yoder, 2000). 처방과 평가는 고정관념이 가지고 있는 두 개념 차원인 능력차원과 호감차원에 의해 결정된다 (Glick & Fiske, 1999). 능력차원은 성취나 지위와 관련되는 차원이고, 호감차원은 따뜻함과 정중함 같은 사회적 특질과 관련되는 차원이다.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은 여성은 능력은 없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특성들을 갖는다고 보는 반면 남성은 능력이 있고 성취지향적이며 지위가 높다고 간주한다. Glick과 Fiske(1999)는 남녀집단처럼 서로 상호의존적인 관계이면서, 한 집단이 오랫동안 지배적이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배집단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정당화되면서 종속집단에게 호감차원에서 책임을 질 것을 처방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성별 고정관념의 처방적 속성은 여성에 대한 표상에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람들은 여성을 남성보다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Lorenzi-Cioldi, et al., 1995). 여성은 남성에 비해 표지를 단(marked) 집단이며, 보다 쉽게 성별로 범주화되어, 여의사나 여류화가는 의사나 화가로서보다는 분명하게 여성으로 범주화된다는 것이다(Fiske, 1998). 직업이나 지위와 관련하여 여성에게 표지를 붙이는 것은 역사적으로 높은 지위와 다양한 분야들을 남성들이 독점했고, 여성들은 동질적인 상황에 놓여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유형화하여 고정관념의 결정적 특성을 적용하기를 기피하고, 낮은 지위의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쉽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Deaux, et al., 1997; Fiske, 1994).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를 점하고 있는 여성범주에 대해서는 고정관념이 더 강하게 작용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재호 등(2001)은 점화단어로 성별 고정관념적 속성을 제시하고 동일 범주나 다른 범주의 속성 단어를 명명케 하였을 때 남성범주에 비해서 여성범주의 일치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범주의 속성간 의미적 응집성이 남성범주에 비해 높고, 여성과 남성이 비대칭적인 범주로 표상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자동적인 내집단 선호도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다루는 연구들은 내집

단 선호가 편견의 주범이고, 내집단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긍정적인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Perdue 등(1990)은 “we”와 “they”를 점화자극으로 제시한 뒤, 56ms 이내에 긍정 혹은 부정 속성을 제시했을 때 내집단 선호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Dovidio 등(1986)은 백인들을 상대로 “white”, “black”을 점화단어로 제시한 뒤 백인과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적 속성과 긍정적 혹은 부정적 성격특질에 반응하는 속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백인 피험자들은 흑백 고정관념 단어쌍에 대해서는 모두 빨리 반응하였다. 그러나 백인에 대한 고정관념 쌍의 속도가 흑인에 대한 것보다 두 배나 빨랐다. 한편 “white”가 점화된 경우에는 긍정 속성이 부정 속성보다 더 빠르게 반응되었으며, “black”이 점화된 경우에는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 결과는 내집단에 대해서는 긍정 연합이 자동적으로 처리된다는 증거를 보여준 것이다. 유사한 결과가 젊은 대학생들에게서도 관찰되었다. “young” 혹은 “old” 단어의 점화가 긍정 부정 속성 형용사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azio 등(1995)은 흑인이나 백인의 얼굴을 제시하여 인종범주를 의식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일련의 긍정적 부정적 성격속성을 물었을 때 백인은 흑인이 점화되었을 때에 부정 반응이 빠르고 흑인은 백인이 점화되었을 때에 부정반응이 빠르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성별과 관련된 내집단 선호도는 사진분류나 대명사 분류에서 나타났다. 성에 따라 사진을 분류하게 했을 때 동성 사진을 이성 사진보다 빨리 분류하며, 직업 분류에서도 동성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남성들은 “he”를 “she”보다 빨리

분류하고, 여성은 “she”를 더 빨리 분류하였다 (Banaji, et al., 1996; Zarate, et al., 1995). 또한 Rudman 등(2001)은 성별 고정관념을 암묵연상 과제(Implicit Association Test, IAT)를 사용하여 자동적 평가의 암묵적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warmth’에 강한 연합을 보였고, 남자는 여자에 비해 ‘power’에 강한 연합을 보였다. 이는 자신의 성과 일치하는 범주에 대해 민감할 뿐 아니라 그 범주 속성 중에서 긍정적 속성에 연합하려는 경향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내집단 선호는 자신과 관련된 범주표상에 긍정적인 요인들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남녀 범주는 상호의존적 관계의 범주이고, 따라서 다양한 범주에 재범주화될 가능성이 있다. 자신을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보느냐에 따라 내집단 현상이 성별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도 있지만, 가족단위나 공동체 단위로 자신을 소속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집단 선호가 성별범주 표상에 작용하는지는 더 체계적으로 밝혀야 할 문제이다.

범주 속성의 일치성 효과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들은 또한 점화자극이 고정관념의 의미를 담고 있고 목표자극이 제시될 때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조건에서 반응이 촉진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Devine(1989)은 편견이 높거나 낮은 집단에게 흑인과 관련된 명칭들과 고정관념내용을 점화자극으로 제시한 뒤, “Donald”를 묘사하는 문장을 읽도록 했을 때, 피험자들은 흑인 고정관념이 점화된 경우, “Donald”의 모호한 행동을 더 혐오적으로 해석

하는 경향이 있었고, 편견 고저집단간에 차이는 나오지 않았다. Greenwald, McGhee, 및 Schwartz(1998)는 암묵연상과제를 통해서 점화 단어와 목표단어가 둘 다 백인 관련 단어인 경우가 점화단어는 백인관련 단어이고 목표단어는 흑인관련 단어인 경우에 비해 반응시간이 빠름을 보였다. 또한 Banaji(1993)는 중립자극을 점화자극으로 제공한 뒤에는 남녀의 의존성 공격성 평정에 차이가 없지만, 성별 고정관념을 점화자극으로 제공한 뒤에는 남자는 공격적, 여자는 의존적이라고 평정함을 발견하였다. 더욱이 Banaji 등(1996)은 성 관련 명사나 성 분업적 직업, 일반적인 남성명사를 점화자극으로 제시한 뒤 대명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또는 대명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점화자극과 고정관념적으로 일치하는 자극에 대한 반응속도가 촉진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 효과는 성별 고정관념적 성격속성이나 다른 속성들(예: 분홍색, 남성적)을 전의식 수준에서 점화할 때에도 일관적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고정관념 일치효과가 상황에 따라서는 편견 고저집단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전의식 수준에서 인종범주(예: 흑인, 인디안)를 활성화시키고 다른 고정관념 특성들은 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편견이 높은 사람보다 편견적인 반응을 자동적으로 반응하지만 편견이 낮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나타난다(Lepore & Brown, 1997). 또한 고정관념 일치효과는 단순하지 않고, 내집단 선호도와 통합되어 작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Wittenbrink 등(1997)은 인종범주를 전의식 수준에서 점화시키고 두 번째 단어를 의식수준에서 어휘판단을 시켰을 때 고정관념 일치효과가 나타나지만, 내

집단 선호와 외집단 혐오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즉 백인피험자들은 흑인을 점화한 경우 부정적 단어에 대한 판단속도가 빨라졌고, 백인을 점화한 경우 긍정적 단어에 대한 판단속도가 빨랐다.

또한 성별 고정관념의 일치효과는 자신이 속한 성별보다는 이성에 대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Brewer 등(1997)은 범주화의 결과로 집단간 차이는 과장되고 집단내에서는 유사성이 강조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외집단에 대해 일어난다고 지적한다. 이런 외집단 동질성 효과는 내집단에 대해서는 많은 양의 정보를 갖지만, 외집단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갖지 못하는데서 발생한다. 즉 자신이 속한 성별 범주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덜 적용하지만, 이성 범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므로 고정관념을 더 적용한다는 것이다.

범주 속성의 긍정성 효과

최근의 연구는 고정관념 속성간의 일치효과에 더불어 속성간의 긍정성 효과도 나타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점화단어와 목표단어가 모두 긍정적인 경우가 부정적인 경우보다 점화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De Houwer, Hermans, & Spruyt, 2001; Klauer, Rossnagel, & Musch, 1997; 이재호, 오경기, 김미라 및 조궁호, 2001). 인상형성, 설득, 판단 및 평가 등의 인지적 과제 등을 사용한 실험들에 의하면 정적인 정서는 기존의 범용 일반 지식구조에 의존하는 정보처리를 하고, 추단적 처리를 하며 세부사항에 인지 용량을 할당하지 않도록 하지만, 부정 정서는 체계적, 분석적 정보처리를 하며

세부사항에 인지용량을 할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의의 방향은 정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상이한 처리과정을 야기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적인 정서는 처리자의 주의를 외부로 지향하게 하며 부정적인 정서는 내부로 지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정서의 종류에 따라 관여하는 정보처리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는 그 효과가 상호 비대칭적인 양상으로 구조화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Klauer 등(1997)은 성격 특질(traits)을 사용하여 일치성 효과를 살펴보았다. 특질을 일치조건(예: 긍정-긍정 혹은 부정-부정)과 불일치조건(예: 긍정-부정 혹은 부정-긍정)으로 구분하여 참가자에게 제시하고 목표 단어가 긍정인지 혹은 부정인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SOA 0-100ms에서는 일치성 효과가 관찰되었지만 SOA 100ms조건과 200-1200ms에서는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더불어 일치성 효과에 배치되는 결과로서 긍정-긍정 조건이 부정-부정 조건에 비해서 평가의 판단이 빠르게 나타났다. 특히 이재호 등(2001)의 성별 선호도의 점화효과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 점화단어와 목표단어의 긍정-부정 일치성 효과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긍정 일치성 효과, 즉 긍정-긍정 조건이 부정-부정 조건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SOA 250-500ms에서 점화단어보다는 목표단어의 긍정성이 명명시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긍정성 효과는 성격특질 뿐 아니라 인물에 대해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이 점화되는 경우 긍정적 특

질에 대한 판단이 빠를 것이다. 이런 긍정성 효과는 성별 고정관념과 연합하여 일어날 수 있다. Fiske 등(1999)의 주장처럼 여성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이 호감차원에서 형성되어 있다면 여성이 점화된 경우 긍정성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반면 남성의 성별 고정관념이 능력차원에서만 이루어져 있고, 호감차원과는 무관하다면 긍정성 효과는 남성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문제

고정관념의 성별 범주는 어떻게 표상되어 있는가? 성별 고정관념의 비대칭성, 내집단 선호도, 범주 속성의 일치성 효과, 및 범주 속성의 긍정성 효과 등은 성별 고정관념의 표상 구조가 단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작용기제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혼입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Rudman 등(2001)은 고정관념의 활성화과정에서 성별 평가, 성별 범주 및 자신과의 관련성 등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비대칭성 모델의 주장처럼 여성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이 더 동질적이고 강한 연합망을 가졌다면,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 반응보다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반응은 더욱 빠를 것이다. 또한 처방 모델에 따르면(Fiske, 1993; 1999; 조혜자, 2001) 성별 범주는 기술적인 내용 뿐 아니라 처방적인 속성을 강하게 함의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여성에 대한 호감도 차원의 처방적 내용은 여성 표상에 긍정적 특성내용의 고정관념이 자리하여 긍정성 효과를 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내집단 선호 모델이나 외집단 동질성 모델은 여성에 대해서 선호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피험자의 성에 따라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 표상이 다르고 반응이 달라질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델들의 갈등적인 가설들을 명백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표는 성별 범주의 암묵적 표상 구조가 개인의 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위의 모델들의 가설을 확인하는데 있다. 성별 고정관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양성(남성)의 이름을 점화 자극으로 제시하고, 참가자의 성을 분류변인으로 하였다. 그리고 고정관념의 표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별 전형성과 성별 선호도 변인을 조작하였다. 즉 성별 속성의 전형성 차원은 남성과 여성을 대표하는 속성과 그렇지 않는 속성으로 분류 구성하였고, 선호도 차원은 긍정 속성과 부정 속성을 분리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전의식적인 즉 암묵적 수준에서 점화 자극을 제시하고(SOA, stimulus onset asynchrony, 250ms) 목표 자극의 명명 과정의 반응시간을 측정하였다.

방 법

참가자: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82명이 참가하였다. 이 중 여학생은 39명이었으며, 남학생은 43명이었다.

실험설계: 독립변인은 점화조건(여성이름, 남성이름), 전형성(전형단어, 비전형단어), 선호도(긍정단어, 부정단어), 및 참가자의 성(여자, 남자)이었다. 이 중에서 참가자의 성은 피험자간 변인이었으며, 나머지 세 독립변인은 피험자내 변인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2*2*2)*2 혼합요인 설계를 적용하였다.

실험재료: 점화단어는 한국어에서 여성과 남성 이름을 각각 20개씩 구성하였다. 목표단어는 이재호 등(2001)의 연구에서 조사된 성별 단어를 사용하였다. 참가자의 성별 범주, 전형성 평정치와 선호도 평정치를 근거로 하여, 여성과 남성의 범주내에서 전형성 점수가 높으면서 선호도 점수가 높은 단어 5개, 전형성 점수가 낮으면서 선호도 점수가 높은 단어 5개, 전형성 점수가 높으면서 선호도 점수가 낮은 단어 5개, 전형성 점수가 낮으면서 선호도 점수가 낮은 단어 5개가 선정되었다. 성별 범주별로 20개씩의 목표단어가 선정되었고, 모두 40개의 목표단어가 선정되었다. 이들 단어는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남성 단어 20개와 여성 단어 20개, 모두 40개의 성별 속성 단어가 실험 단어로 선정되었다. 각 단어는 명사나 형용사로 구성되었으며, 글자의 길이는 3-5자로 통제하였다(부록 1 참조). 실험재료는 여성과 남성 이름 40개와 짝지워진 40개의 점화단어-목표단어의 자극쌍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는 각 조건을 모두 경험하면서 각 조건에 제시된 자극쌍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지는 않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 모두 8개의 이형 자극 목록 세트를 만들었다. 참가자는 8개의 이형 중에서 한 이형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실험절차: 실험은 개인별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실험의 지시문은 컴퓨터 화면에 제시되었고, 참가자가 스스로 키보드를 사용하여 이해하도록 하였다. 실험 절차는, 먼저 컴퓨터 화면에 '****' 표시가 500ms동안 제시되었고, 그 표시가 사라지면 점화단어가 150ms동안 제시되었다. 점화단어가 제시된 후 100ms가 경과된 다음 목표단어가 제시되었다(SOA 250ms).

자극 제시의 통제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점화단어가 나타나면 그 단어의 제시 여부만 확인하게 하였고,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게 지시하였다. 또한 점화단어 이후에 목표단어가 화면에 제시되면 참가자에게 준비된 마이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목표단어를 소리내어 발음하도록 하였다. 마이크에 발성된 신호는 사운드 카드를 통해서 컴퓨터로 입력되었고, 반응 시간은 목표단어가 화면에 제시된 시점부터 참가자가 단어의 발음을 개시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이며, 이 시간은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파일로 기록되게 하였다. 그런 후, 다음 시행이 같은 절차로 반복 진행되었다. 한 시행과 다음 시행간의 시간 간격은 1000ms였다. 본 실험이 실시되기 전에 실험절차의 이해와 명명반응을 숙지시키기 위해서 10번의 연습시행을 실시하였다. 연습시행에 사용된 단어는 본 실험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였으며, 의미적으로도 무관한 단어였다. 본 실험의 시행절차는 연습시행과 동일하였다. 참가자는 모두 40개의 점화단어-목표단어 자극쌍에 대한 반응을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컴퓨터는 IBM/PC 펜티엄 기종이었으며, 실험 프로그램은 Quick Basic으로 구성하였으며, MS-DOS 6.20상에서 수행되게 하였다.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결 과

명명과제에서 목표단어의 명명 오류는 거의 없었다. 반응시간이 200ms 이하인 반응과 표준 편차 3이상인 반응(929ms)은 분석에서 제외시켰

다(1.1%). 목표단어의 명명시간 평균이 표 1에 제시되었다. 목표단어의 명명시간을 변량분석한 결과, 참가자 성의 피험자간 주효과($F(1,80)=7.96, MSe=56805.78, p<.01$), 성별단서의 주효과($F(1,80)=25.71, MSe=969.21, p<.001$), 전형성의 주효과($F(1,80)=9.14, MSe=640.23, p<.01$), 및 선호도의 주효과($F(1,80)=78.28, MSe=893.20,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상호작용에서는 참가자 성과 성별단서의 이원상호작용($F(1,80)=13.39, MSe=969.21, p<.001$)과 전형성과 선호도의 이원상호작용($F(1,80)=15.82, MSe=1570.35,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두 개의 삼원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참가자 성, 성별단서, 및 전형성 간의 상호작용($F(1,80)=7.43, MSe=812.70, p<.01$)과 참가자 성, 전형성, 및 선호도 간의 상호작용($F(1,80)=6.66, MSe=1570.32,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 연구의 전체 자료의 분석에서 상호작용이 복잡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참가자 성, 즉 여자/남자를 각각 분리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자 참가

자의 분석에서는 선호도의 주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42)=33.37, MSe=858.39, p<.001$). 긍정단어(562ms)가 부정단어(580ms)보다 18ms 빨랐다. 여자 참가자의 분석은 그 양상이 매우 복잡하였다. 성별단서의 주효과($F(1,38)=2801, MSe=1257.42, p<.001$), 전형성의 주효과($F(1,38)=6.32, MSe=746.69, p<.05$), 및 선호도의 주효과($F(1,38)=44.65, MSe=931.68,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상호작용에서는 성별단서와 전형성의 이원상호작용($F(1,38)=5.42, MSe=1060.45, p<.05$)과 전형성과 선호도의 이원상호작용($F(1,38)=14.36, MSe=2243.09,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전체 분석에서 나타난 두 삼원상호작용은 여자 피험자의 두 이원상호작용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었다. 이원상호작용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성별단서와 전형성의 이원상호작용은 남성단서에 의해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남성단서가 제시되면 전형단어가 비전형단어에 비해서 16ms나 반응이 빨랐지만, 여성단서가 제시되면 반응시간의 차이가 없었다. 또한 전형성과 선호도의 이원상호작용은 전형/긍정 단어에 대

표 1. 성, 성별, 전형성 및 선호도에 따른 목표단어의 명명시간 평균(ms)

성(sex)	성별단서	목표단어의 조건				평균
		전형/긍정	전형/부정	비전형/긍정	비전형/부정	
여 자	여성	589 (69)	637 (105)	607 (82)	618 (65)	613
	남성	606 (86)	646 (105)	645 (101)	640 (93)	634
	평균	598	641	626	629	623
남 자	여성	552 (81)	579 (92)	557 (83)	578 (85)	569
	남성	563 (88)	581 (93)	564 (92)	581 (95)	573
	평균	557	580	566	580	571

() 안은 표준편차

한 반응이 전형/부정 단어에 비해서 무려 43ms 나 빨랐지만 비전형단어에서는 선호도의 차이가 없었다.

1) 성의 일치성 효과

남녀는 성 분화된 사회 속에 살면서, 성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성 정체성이 자아개념의 중심에 놓게 된다고 주장되어 왔다. 그렇다면 자신이 속해있는 성별 범주에 대한 성 고정관념에 쉽게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이는 성의 일치성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그림 1에서 보여준다. 성(남자/여자)과 성별(남성/여성)의 상호작용은 남자는 여자보다 성별단서에 대한 반응시간이 빨랐지만 성별간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반면에 여자는 남자보다 성별단서에 대한 반응시간은 느렸지만 성/성별 일치성 효과가 나타나, 여성에 대한 반응이 남성에 대한 반응보다 22ms 빨랐다. 즉 남자 참가자에게서는 성 일치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데 비해, 여자 참가자들에게서는 성 일치성 효과가 나타났다.

2) 전형성 효과: 고정관념 일치효과

고정관념 일치효과는 성별단서에 따라 전형적 단어(고정관념)들의 반응이 비전형적 단어들보다 빨리 활성화되는데서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림 2는 전형성 효과가 참가자의 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남자나 여자 참가자 모두 동성보다는 이성에 대한 전형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남자는 여성의 전형적 속성에 대하여 민감하며, 여자는 남성의 전형성에 민감하다. 그러나 동성과 이성에 대한 반응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남자는 여성의 전형적 단어의 반응이 다른 조건보다 빨랐으며, 여자참가자는 여성단서에 비해 남성단서에 대한 반응이 느리면서 남성의 비전형 단어의 반응이 느렸다. 이재호 등(2001)의 연구에서는 범주간 점화에서 전형과 비전형 단어간의 점화효과 차이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성별 고정관념의 범주적 표상이 분명하지 않으며 여성범주와 남성범주가 교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남녀 피험자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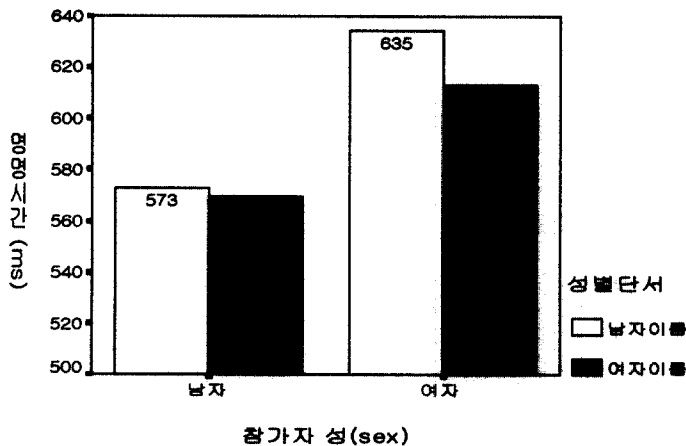


그림 1. 참가자 성과 성별단서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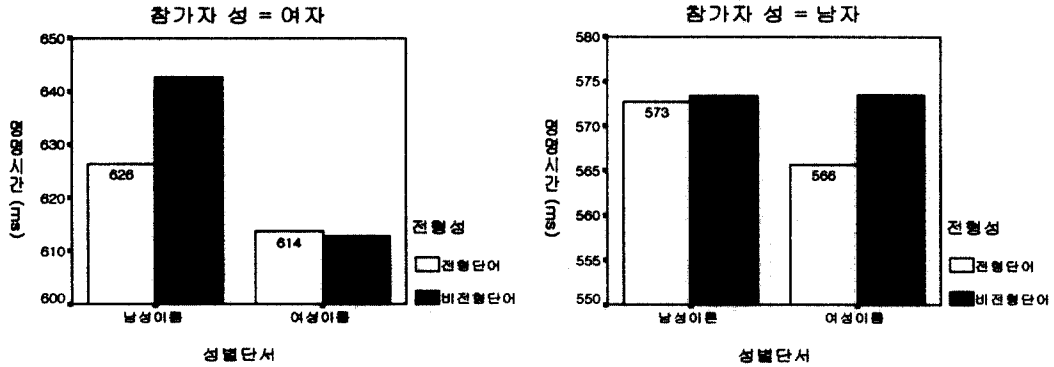


그림 2 참가자 성, 성별단서 및 전형성의 상호작용 효과

기 이성에 대한 전형성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동성에 대해서는 내집단이므로 고정관념을 덜 적용시키지만, 이성이 제시되면 이성에 대한 성별의 전형적 속성을 활성화시켜 고정관념을 적용시키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외집단 동질성 가정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그 원인을 좀더 세부적으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긍정성 효과

참가자들의 선호도 반응은 남자와 여자가

공통적으로 긍정단어에 대해 부정단어보다 반응이 빠른 긍정성 효과가 나타났다(그림 3 참조). 통계적 분석에서는 참가자의 성, 전형성, 및 선호도 간의 상호작용($F(1,80)=6.66$, $MSe=1570.32$, $p<.05$)이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전형단어에서는 참가자 성과 선호도 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80)=5.70$, $MSe=1558.29$, $p<.05$). 남자는 긍정단어와 부정단어의 차이가 23ms였지만 여자는 긍정단어와 부정단어의 차이가 무려 43ms나 되었다. 남녀참가자 모두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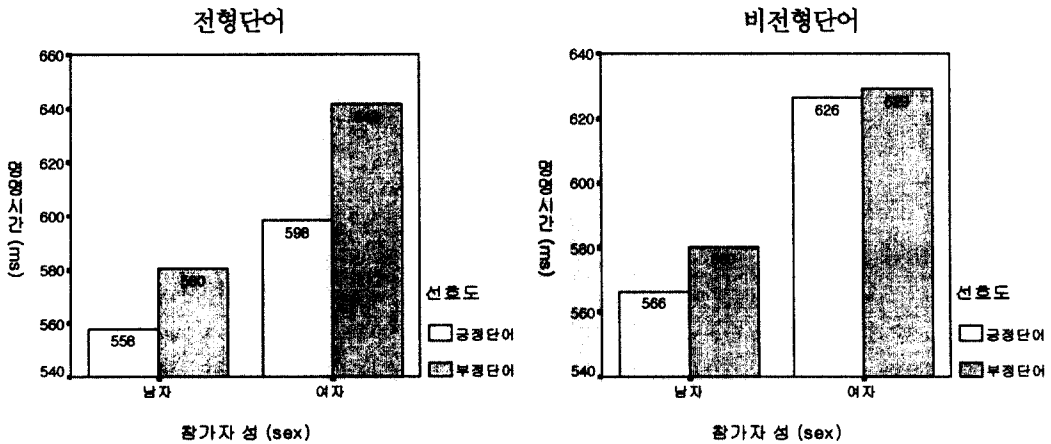


그림 3 참가자의 성에 따른 선호도 점화효과

일하게 긍정단어에 비해서 부정단어의 활성화가 빠르지만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그 차이가 큰 것이다. 비전형 단어에 대해서는 참가자 성과 선호도의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남자 참가자들에게서는 비전형 단어에서도 24ms의 긍정성 효과가 나타났지만, 여자 참가자들은 비전형 단어에 대해서는 긍정단어와 부정단어간에 차이가 없이 반응을 느리게 했다. 이러한 결과는 고정관념 표상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긍정성을 중심으로 형성하는데 비해, 남자들은 범주 유형에 무관하게 긍정성 효과에 민감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성 범주표상은 고정관념과 관련된 것으로, 비전형적인 단어는 범주표상과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전형단어들에 대해서만 상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림 4는 전형 단어 즉 고정관념적 특성들에 대한 남녀 참가자들의 반응을 보여준다. 그림 4에서는 남자 참가자와 여자 참가자의 성별단서에 대한 반응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남녀 참가자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 이름이 제시된 경우 전형적인 속성단어 명명에 촉진효과를 보인 것이다. 성의 일치성 효과가 여성에게서는 나타나고 남성에게서는 역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남녀 참가자 모두 여성이름에서의 긍정-부정 단어의 반응차이보다(남자: 18ms, 여자: 39ms) 여성이름에서의 차이(남자: 27ms, 여자: 47ms)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성 고정관념은 부정정보보다는 긍정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에게 호감차원에서 처방적이기 때문에 여성이름에 대한 긍정성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여성 선호도

남녀 집단은 자신이 속한 성에 대한 내집단 선호도가 있는가? 표 1과 그림 3, 4가 제시하는 바에 의하면 남자 참가자들에게서는 전반적인 선호도 주효과가 나타나지만, 남성 단서에 의한 긍정단어 반응촉진보다는 오히려 여성단서에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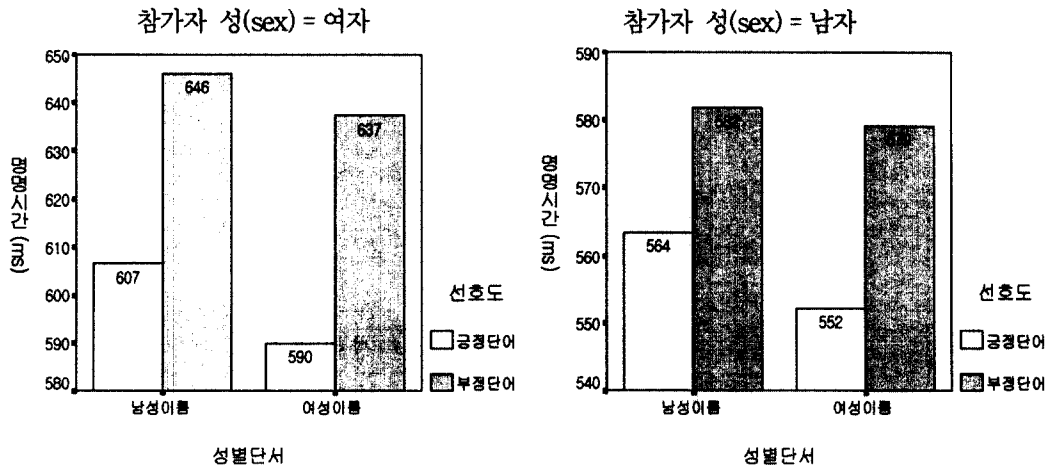


그림 4. 전형단어에서 나타난 참가자의 성에 따른 성별단서와 선호도의 상호작용

한 긍정단어 촉진현상이 내집단 선호도보다는 여성 선호도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여성 피험자들에게서는 전반적으로 강한 내집단 선호 현상이 나타나 여성이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반응이 부정반응보다 빠르며, 남성이름이 단서로 나오는 경우에는 전형단어에 대해서만 긍정단어 촉진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내집단 선호로 해석하는데는 문제가 있고, 오히려 고정관념의 비대칭성과 긍정성 효과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 같다. 특히 남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여성 선호도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내용이 비대칭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즉 남자들은 여성에 대해 이상애적인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속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표상하고 있으며, 따라서 Eagly(1995)의 연구에서 지적하는 "women are wonderful effect"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남성의 여성 선호와 여성의 내집단 선호는 사실상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적용과 수용차원에서 이해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현상들은 남자와 여자

참가자들 간에 고정관념의 표상이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여자 참가자들은 전형성과 선호도 패턴에서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그림 5를 통해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5는 여자 참가자들이 전반적으로 전형성에 상관없이 내집단 선호를 보이며, 부정속성 단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압적인 반응을 보이고, 특히 전형적으로 여성에게 부정적인 속성 단어에 대해 억압적인 반응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자들이 남성이름에 대해 전형단어에서 긍정반응이 빠른 현상은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 역시 긍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남성의 부정적인 속성과 비전형적인 단어들 모두에 대해 느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여자 참가자들이 외집단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고, 따라서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경향성이 높고, 긍정속성을 중심으로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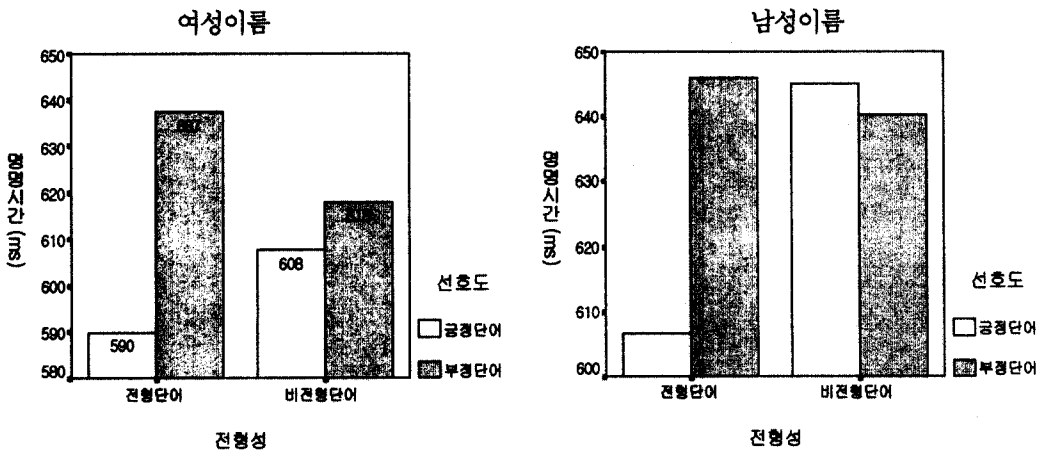


그림 5. 여자 참가자의 성별단서, 전형성 및 선호도의 상호작용

논 의

Irigaray(1990)에 의하면 주체성 자체가 정체성의 결과 이상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한다. 개인의 정체체감 형성에는 개인자신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에게서 통용되고 있는 성별 고정관념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성별 범주에 대한 표상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가를 밝히는 것은 성 고정관념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기반 작업인 것이다. 이 연구는 성별 범주의 표상 구조 및 그 처리 양식을 중심으로 성별 고정관념의 암묵적 표상구조의 특성을 밝히고자 시도되었다. 성별 범주는 일반 범주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회적 범주들(예: 인종 등)과도 구분된다. 성별 범주가 일반 범주 표상에 비해서 느슨한 위계적 구조 및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성별 범주 처리가 다른 범주와는 차별적인 양식으로, 복합적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통해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의 일치성 효과는 여자 참가자에게서만 입증되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성 범주에 민감하며, 이는 성의 일치성 효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험 결과 여자는 달리 남자 참가자의 경우 성 일치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자는 남성 단서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이성인 여성 단서에 대해서도 빠르게 반응했다. 이는 여성 범주에 관한 남자들의 표상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다시 말해 성 고정관념적으로 제한된 내용으로 구조화되어 있을 가능성을 함축한다. 즉 남자가 성/성별 불일치

조건인 여성 단서에도 민감한 것은 Fiske (1998)가 지적했듯이 여성은 소위 표지를 단(marked) 집단으로 쉽게 성별(gender)로 묶이기 때문에 더 빨리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 전체적으로 전형성 효과(성별 고정관념 일치 효과)가 나타나, 남자의 경우 여성의 비전형성보다 전형성에, 여자의 경우 남성의 비전형성보다 전형성에 빠르게 반응했다. 사회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인간은 이성의 전형성에 민감하게끔 진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이성의 비전형성보다 전형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것과는 달리 자신의 성별 범주와 관련해서는 전형/비전형 조건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반응했다. 이러한 성별 고정관념 일치효과는 Brewer 등(1998)이 지적하였듯이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정보가 적기 때문에 유사성이 강조되면서 외집단 동질성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에 자신이 속해 있는 내집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많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덜 적용한 결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전형성 효과가 참가자의 성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즉 자신의 성별 전형성에 민감한 여자의 반응 패턴과는 달리 남자의 경우 이성인 여성의 전형적 단어에 대한 반응이 다른 모든 조건들에 비해 가장 빠르게 나타났다. 이렇듯 남자의 경우 자신의 성별 전형성보다 이성의 성별 전형성에 더 반응이 빨랐다는 결과는 해석이 요구된다. 즉 남자에게서 여성 단서에 대한 촉진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외집단 동질성 효과의 정도를 넘어 서서 여자에 대한 남자의 성별 고정관념이 연결망으로 내재화되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전반적으로는 긍정성 효과가 입증되어. 남자와 여자 모두 부정단어보다 긍정단어에 더 빨리 응답했다. 정서점화 모형에 따르면, 정서상태가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킨다. Bower(1981)는 기억 의미망 구조 속에 정적인 정서와 부적인 정서의 마디가 포함되고, 특정 정서마디가 활성화되면 그 정서마디와 연결된 다른 마디들쪽으로 정서의 효과가 확산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활성화 확산은 과거에 확립된 연결강도에 의존하며 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적인 정서와 부적인 정서의 처리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정적인 정서와 연결된 의미고리들은 다른 마디와 광범위한 연결통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얻어진 긍정성 효과는 성별에 따라 다른 양식으로 나타났다. 긍정성 효과는 여자의 경우 전형 조건에서 훨씬 강하게 나타났으나, 비전형 조건에서는 그 효과가 사라져서 긍정/부정 단어간에 반응 차이가 없었다. 이는 여자의 경우 주로 전형적이면서 긍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성별 고정관념이 구조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여자의 성별 고정관념의 표상구조가 긍정이지만 전형적이지 않은 정보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은 성별 범주에 포함된 내용의 다양성과 융통성이라는 측면에서 또다른 제약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남자의 경우는 여자와 달리 비전형 조건에서도 전형 조건과 마찬가지로 긍정성 효과를 나타내어, 긍정 단어에 대한 반응이 빨랐다. 이는 남자의 성별 고정관념 표상구조가 전형/비전형과 무관하게 주로 긍정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용함을 함축한다. 긍정성 효과에서의 남자/여자 참가자간의 차이는 성 고정관념 표상구조에서의 남녀 비

대칭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성별 범주와 관련된 비대칭성은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긍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전형적인 성고정관념을 형성하지만, 남자의 경우는 비전형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긍정성에 의해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Greenwald와 Banaji(1995)가 지적하였듯이 기억구조 속의 연결통로를 통한 자동적인 의미적 점화는 후속 반응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때, 문제는 남자에게서 보여지는 긍정성 효과가 현실적으로는 종종 여자에 대한 당위적 요구 내지는 처방적 강요의 형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내집단 선호도는 여자 참가자에게서 강하게 나타났으나, 남자 참가자의 경우 오히려 여성 선호도가 더 두드러졌다. 즉 여자의 경우 강한 내집단 선호가 일어나 여성의 긍정단어에 대해서는 전형/비전형 조건과 무관하게 빠른 반응이 나타났으며, 남성의 긍정단어에 대해서는 전형 조건에서만 긍정성 촉진효과가 나타났다. Allport가 지적했듯이 내집단에 대한 애착이 외집단 혐오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내집단 동일시 현상은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는 독립적인 것으로, 내집단 선호와 외집단에 대한 차별은 외집단에 대한 혐오보다는 오히려 내집단에 대한 선호적인 처우에 의해 동기화될 수 있다(Brewer, 1998). 사실상 내집단 선호 현상의 기저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적 동기가 자리 잡고 있다. 콜버그에 의하더라도 발달과정에서 아동이 성유형화된 특성을 채택하게 되는 것은 자아일관성과 자긍심 때문이라고 한다. 즉 유목화 개념이 발달하면서 범주 개념이 확고해지면, 자신과 같은 성별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과 그들

의 행동에 더 가치를 두면서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되고, 그들과 비슷한 행동을 하면서 자아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고 한다. 즉 여자의 내집단 선호도는 남자 혐오와는 무관하다.

그런데 왜 남자의 경우 내집단 선호도보다도 여성 선호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일까? 이미 지적되었듯이 남녀에 대한 표상은 분화되어 있으며, 겹쳐지는 부분도 있다는(Eckes, 1994; Six & Eckes, 1991) 측면에서 보더라도 남자에게서 나타난 여성 선호도는 여자와는 다른 성 고정관념의 표상구조 및 그 작용 양식의 특성에서 기인된 것일 수 있다. 즉 남자의 여성 선호 반응은 내집단 선호성이 약해서가 아니라 '바람직한' 여성상에 대한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성별 범주 처리시에 그만큼 강한 촉진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남자의 여성에 대한 호감차원에서의 민감성이란 결과적으로 Fiske(1999)가 지적하였듯이 처방적 내용으로 여자에게 적용되기 쉽다. 여성에 대한 범주 표상이 호감차원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었다는 사실은 실제로 여성에게 호감을 갖는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로서 오히려 호감스러움의 기대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반감을 불러일으키게 될 뿐이다. 더구나 호감차원 중심의 표상구조는 여성의 능력 차원에 대한 활성화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 특히 호감성에 근거한 처방적 내용은 자기이행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 효과에 여자들 자신의 특성으로 내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 연구에서도 여자의 경우 특히 전형 조건에서 여성의 부정 정보에 대한 반응이 매우 억압적이었으며, 비전형 조건에서도 긍정 정보에 비해 부정 정보에 대한 반응이 억압적인 것으로 나타

난바 있다.

성별 범주는 사회 정보를 안정성있고 유의하게 조직하게끔 하는 인지구조로 기능한다. 따라서 성별과 관련된 표상 구조의 특성은 곧바로 일상에서의 성별 관련 정보처리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성별 범주는 일반 범주와는 달리 기술적 내용 뿐 아니라 능력과 호감 차원을 중심으로 평가와 처방의 의미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성별 범주 속에 자연스럽게 담겨진 처방적 내용들은 당위적 의미로 특히 약자 집단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성 고정관념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강하게 적용되고 있으며(Fiske, 1999; 조혜자, 2001), 여성에 대한 성 고정관념이 더 처방적인 의미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볼 때, 성 고정관념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성별 편파적인 활성화가 자동적으로 촉진되고 광범위한 주제에 걸쳐 성 편견적이거나 성 차별적인 처리 양식이 굳어질 수 있다. 사실상 성별 범주 표상 구조상의 비대칭성 문제는 보다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현실적 대안 탐색을 위해서는 관련된 다양한 요인(예: 개인차, 문화 등) 및 작동 기제들에 대한 체계적인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 문헌

- 이재호·오경기·김미라·조궁호(2000). 성별 선호도의 긍정-부정성이 자동적 평가에 미치는 효과. 2000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24-225.
- 조혜자(2001). 성 고정관념: 왜 끈질긴가? 2001년도 여성심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5.

- Ashmore, R., DelBoca, F., & Wohlers, A. (1987). Gender stereotypes. In R. Ashmore & F. DelBoca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Female-Male Relations* (pp.69-120). London, Academic Press.
- Banaji, M., & Hardin, C. (1996). Automatic stereotyping. *Psychological Science*, 7, 136-141.
- Banaji, M., Hardin, C., & Rothman, A. J. (1993). Implicit stereotyping in person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272-281.
- Barsalou, L. W. (1999). Perceptual symbol systems. *Behavioral Brain Science*, 22, 577-609.
- Biemet, M., & Kobrynowicz, D. (1999). A shifting perspective on the complexity of gender stereotypes and gender stereotyping. In W. Swann, J. Langlois, & L. Gilbert (Eds.), *Sexism and stereotypes in modern society* (pp. 75-106). Washington DC, APA.
- Bower, G. H. (1981). Mood and memory. *American Psychologist*, 36, 129-148.
- Brewer, M., & Brown, R. (1998). Intergroup relations.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pp. 554-594). NY: McGrawHill
- De Houwer, J., Hermans, D., & Spruyt, A. (2001). Affective priming of pronunciation responses: Effects of target degrad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7, 85-91.
- Deaux, K., & LaFrance, M. (1998). Gender.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pp. 788-827). NY: McGrawHill.
- Deaux, K., & Lewis, L. L. (1984). Structure of gender stereotypes: Interrelationships among components and gender lab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91-1004.
- Deaux, K., Winton, W., Crowley, M., & Lewis, L. (1985). Level of categorization and content of gender stereotypes. *Social Cognition*, 3, 145-167.
- Devine, P. G. (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5-18.
- Dovidio, J., Evans, N., & Tyler, R. (1986). Racial stereotypes: The contents of their cognitive representa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 22-37.
- Eckes, T. (1994). Features of men, features of women: Assessing stereotypic beliefs about gender subtyp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 107-123.
- Fazio, R. H., Sanbonmatsu, D. M., Powell, M. C., & Kardes F. R. (1986). On the automatic activation of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29-238.
- Fiske, S. (1993). Controlling other people: The impact of power on stereotyping. *American Psychologist*, 48, 621-628.
- Fiske, S. (1998).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pp. 357-411). NY: McGrawHill.
- Fiske, S., & Taylor, S. (1991). *Social cognition (2nd ed.)*. NY: McGraw-Hill.
- Glick, P., & Fiske, S. (1999). Gender, power,

- dynamics, and social interaction. In M. Ferree, J. Lorber, & B. Hess (Eds.), *Revisoning gender* (pp.365-398). NY: Sage.
- Glick, P., & Fiske, S. (1999). Sexism and other "isms": Independence, status, and the ambivalent content of stereotypes. In W. Swann, J. Langlois, & L. Gilbert (Eds.), *Sexism and stereotypes in modern society* (pp.193-222). Washington DC, APA.
- Greenwald, A. G., Draine, S. C., & Abrams, R. L. (1996). Three cognitive markers of unconscious semantic activation. *Science*, *273*, 1699-1702.
- Irigaray, L. (1990). "This sex which is not one." In C. Zanardi (Ed.), *Essential papers on the psychology of woman*. NY: NY University Press.
- Klauer, K. C., Rossnagel, C., & Musch, J. (1997). List-context effects in evaluative prim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23*, 246-255.
- Kunda, Z. (2000). *Social cognition: Making sense of people*. Cambridge, Mass.: MIT Press.
- Lepore, L., & Brown, R. (1997). Category and stereotype activation: Is prejudice inevitab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275-287.
- Lorenzi-Cioldi, F., Eagly, A., & Stewart, T. (1995). Homogeneity of gender groups in memor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1*, 193-217.
- Mackie, D., Hamilton, D., Susskind, J., & Rosselli, F. (1996). Social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stereotype formation. In C. Macrae, C. Stangor, & M. Hewstone (Eds.), *Stereotypes and stereotyping* (pp.41-78). NY: Guilford.
- Macrae, C., Milne, A., & Bodenhausen, G. (1994). Stereotypes as energy-saving devices: A peek inside the cognitive toolbox.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37-47.
- Perdue, C., Dovidio, J., Gurtman, M., & Taylor, R. (1990). Us and them: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process of inter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475-486.
- Rudman, L. Greenwald, A., & McGhee, D. (2001). Implicit self-concept and evaluative implicit gender stereotypes: Self and ingroup share desirable traits.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1164-1178.
- Six, B., & Eckes, T. (1991). A closer look at the complex structure of gender stereotypes. *Sex Roles*, *24*, 57-71.
- Wittenbrink, W., Judd, C., & Park, B. (1997). Evidence for racial prejudice at the implicit level and its relationship with questionnaire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262-274.
- Yoder, J. (2000). *Women and gender: Transforming psychology*. NJ: Prentice Hall.
- Zarate, M., & Sandoval, P. (1995). The effects of contextual cues on making occupational and gender categorization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4*, 353-362.

【부 록】 실험재료의 예

조건	단어 유형		평정치		조건	단어 유형		평정치	
	접화단어	목표단어	전형성	선호도		접화단어	목표단어	전형성	선호도
남성 이름	성수	책임감	4.70	6.35	여성 이름	미라	발랄한	4.60	5.94
	동수	듬직한	5.18	5.45		민정	사랑스런	4.90	6.31
	동훈	바지입는	5.52	4.27		복희	가냘픈	4.48	6.27
	명석	독립심	4.76	5.67		선화	아름다운	5.07	6.12
	영석	돈을버는	4.93	5.35		수연	꾸미는	5.47	5.40
	일호	늑대같은	5.21	2.62		순자	눈물	5.25	5.04
	태환	답배피는	4.63	2.85		지영	소중한	4.67	3.92
	성일	군대가는	6.38	3.64		은미	수다스런	4.76	3.11
	문수	색깔하는	4.66	2.99		은정	빠지는	4.83	3.13
	준호	보수적	4.43	3.08		선희	질투하는	5.05	3.24
	정호	속이넓은	3.99	6.20		경화	성실한	3.60	6.05
	광호	능동적	4.29	6.19		민지	자상한	3.89	6.01
	진석	여유로운	3.65	6.00		민희	분위기있는	4.10	5.66
	민규	적극적	4.36	5.91		선주	침착한	3.83	5.66
	상진	똑똑한	3.58	5.35		수진	차분한	4.07	5.24
	진우	이기적	3.41	2.02		숙희	신경질적	3.67	1.80
	완석	무신경한	3.70	2.57		승희	잔인한	2.83	2.00
	현용	잘난척	3.48	2.13		애란	이중적	3.50	2.05
	진수	허풍떠는	4.13	2.25		영희	지조있는	3.74	2.05
	종화	무뚝뚝한	4.03	3.31		은아	허용심있는	3.99	2.31

* 전형성과 선호도 평정치는 참가자 115명의 평균치이다.
 전형성 평정치 7점(1점 가장 비전형, 7점 가장 전형)
 선호도 평정치 7점(1점 가장 부정, 7점 가장 긍정)

Implicit Representation of Gender Stereotype: Effects of Category, Typicality and Preference of Gender

Jae-Ho Lee · Hyeja Cho · Heejeong Bang

Chung-Ang Univ. · Ewha Womans Univ. · Kyonggi Univ.

To explore the implicit structure of gender-stereotype which was considered having complex and multiple properties, we conducted an experiment using an implicit priming paradigm. Participants were presented gendered names as primes at pre-conscious level(150ms.), and were asked to name adjectives which were differed in their typicalities and preferences of gender properties. The results showed that gender congruent effects(participants' sex - gender label) were found in women participants only, but typicality effects were found toward other sexes and preferences were found toward women all in both sexes.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from a point of view of asymmetrical representation of gender stereotype and prescriptive qualities of gender stereotype toward women.